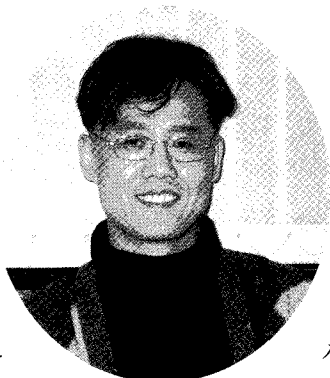


# TOTAL 개념 디자이너 성장 희망

## 제 1회 한용교패키지디자인상 수상

정진영 / 디자인터치 대표

“**체**음으로 제정된 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사실 훌륭한 선배님들과 눈에 보이지 않게 힘을 기울여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수상하고 나니 정말 의외이고,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라는 말로 수상소감을 이야기하는 디자인터



치 정진영 사장은 (사)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 1회 한용교베스트패키지디자이너로 공동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학을 졸업하고 해태제과(주)에 입사하면서 패키지디자인과 인연을 맺게 된 정 사장은 멀지 않은 미래에 펼쳐질 패키지디자인의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과감히 이 길을 걷게 되었다.

그간 (사)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 이사료, 한국패키지디자인학회 회원으로 관련업계와 학계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에 충실해 온 정 사장은 이러한 모습들이 좋은 인상으로 남아 수상하게 된 것 같다는 겸손함을 보였다.

그러나 그간 관련협회와 학회 등에서 보여준 정 사장의 두드러진 활동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한용교패키지디자인 상을 수상한 이유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국내 각종 패키지디자인관련 시상식에서의 수상은 물론, 한국

산업디자인진흥원에서 9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디자인지도사업에 열의를 다해 왔으며 경영자와 일반인들의 디자인마인드 육성에도 노력을 기울여 온 정 사장은 지난 해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TOP 10 디자이너로 선정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차원에서 디자인에 대한 지원이 늘고 있고, 21세기 국가경쟁산업의 첨병으로 디자인이 인식되면서, 상품의 경쟁력 제고에 최우선으로 패키지디자인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광고나 일러스트 등의 분야에 비해 관심과 투자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라고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정 사장은 여전히 패키지디자인은 기존 제품에

부수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서비스개념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일반의 이러한 인식은 물론, 패키지디자인 업계에 종사하는 디자이너들조차도 스스로의 자리매김에 주체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기도 한 정 사장은 그동안 패키지디자인을 해오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 중 하나로 패키지디자이너가 한 분야에만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을 꼽았다.

예를 들어, 식품패키지디자인을 개발하던 디자이너는 화장품이나 다른 분야의 디자인을 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그것인데 정 사장은 “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많을 수 있지만,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위험성이 있습니다”라면서 많은 아이디어를 광고 쪽에서 얻으며 있을 수 있는 매너리즘을 벗어나고 있는 자신의 노하우를 공개하기도 했다.

또한 패키지디자인의 영역을 넓히고, 디자인 산업의 일원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TOTAL 개념의 디자인을 시도해야 할 때라고 덧붙이는 정 사장은 얼마 전 디자인터치가 맡게 된 대형할인유통매장 KIM'S CLUB의 C·I작업이 그 규모면에서나 디자인비용적인 면에서 매우 큰 것도 의미가 있지만, 패키지디자인전문회사에서 C·I를 맡아 진행하게 되었다는 점에 의의를 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곧 자신이 의도하고 있는 TOTAL디자

인으로 가는 첫걸음의 의미도 가지고 있음을 설명했다.

그동안 전통식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디자인지원 활동을 해오면서 클라이언트에게 패키지디자인에 대한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노력했고, 이러한 노력이 현실화되는 것을 느끼게 됐을 때 가장 보람있었다고 기억하는 정 사장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민간차원의 지원은 물론, 앞으로도 변함없는 정부차원의 투자가 지속되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IMF 이후 어려운 상황들은 이해하지만 패키지디자인의 단가가 워낙 낮은데다 덩핑하듯이 디자인가격을 함부로 낮추다 보니 과당경쟁으로 인한 업계 전반의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내보이는 정 사장은 앞으로 국내 패키지디자인업계의 발전을 위해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가진 패키지디자인 전문회사가 확고히 자리매김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하면 할수록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가 패키지 디자인이라고 그간의 노하우에 대한 견해를 대신하는 정 사장은 젊은 의지만큼 패키지디자인의 발전에 앞장 설 수 있는 당당함을 가진 디자이너이다. ☞

윤지은 기자